

“쓰지만 꼭 먹어야 하는 약 같은 영화”

20일 개봉 영화 '우상' 한석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정곡을 찔린 듯한 느낌을 받았죠.”

지난 8일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한석규(55)는 자연스럽게 영화 '우상'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우상' (이수진 감독)은 한 사건에 얽힌 세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미스터리 스릴러로, 이달 20일 개봉을 앞뒀다.

"2017년 여름에 시나리오를 읽었죠. 이창동 감독의 '초록물고기' 정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글이었어요. '초록물고기'는 시나리오만 봐도 영화를 본 것처럼 글의 완성도가 높거든요. 이 작품도 한 문장 한 문장이 치밀했고, 시나리오 자체만으로도 완성도가 있었죠. 특히 라스트 신이 확 각인될 정도로 강력했죠. 그때 내 몸을 통해 이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석규는 '우상'에서 자기 도지사 유력 후보인 도의원 구명회 역할을 맡았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을 알고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해 자수 시킨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뒤를 쫓는다.

한석규는 최근 열린 언론사회에서 완성된 영화를 처음 본 뒤 '하~'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고 했다.

"극영화는 해야 할 이야기,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테마가 있어야 해요. 그 테마를 사랑, 웃음, 고통 등으로 전하는 것이죠. 이 작품은 마치 쓰디쓴 약 같았어요. 많이 쓰긴 하지만, 낫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약이죠."

구명회는 정치적 야망 때문에 거듭 잘못된 선택을 하고, 수렁에 빠진다. 한석규는 "예전부터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비겁한 역할을 해 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구명회가 한순간이라도 관망은 '반응'을 했다면, 폭주하는 것을 멈출 수

잘못된 선택하는 정치인 역 "산다는 건 반응하는 것 한국영화 새로운 변화 필요"

있었을 것"이라며 "다소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영화는 결국 가짜를 통해 진짜를 이야기하고 정곡을 찌르는 것이 매력"이라고 말했다.

연기 경력 28년 차인 한석규는 1990년 KBS 성우로 입사했다가 이듬해 MBC 공채 탤런트로 연기자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드라마 '서울의 달'을 시작으로 영화 '초록물고기', '남버3', '접속', '8월의 크리스마스', '쉬리', '텔미텔미' 등을 거치며 1990년대 최고의 스타로 군림했다. 이후 한동안 공백기와 슬럼프를 겪다가 2000년대 후반 들어 TV와 영화에서 다시 맹활약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젊었을 때는 제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감도 있었고, 연기자로서 맹렬하게 다할 것 같았죠. 그러다 마흔 살에 건강도 덜커덕하고, 자신감도 없어졌죠. 내가 연기를 왜 하나 그런 생각에 휩싸였던 적이 있죠. 연기라는 것이 하찮게 느껴지고 지치기도 했어요. 뭔가에 혹한 것이죠. 그러다가 나이 선이 되니까 '아,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아니구나' 하면서 초심이 생각났죠."

한석규는 신인 감독들과 작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초록물고기' 이창동 감독을 비롯해 '남버 쓰리'의 송능한, '접속' 장유현, '프리즌' 나현 감독이 모두 신인이었다. '우상' 역시 '한공주'로 장편 데뷔한 이수진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다.

"우리는 농사꾼과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어 쌀을 생산하는 일, 거기까지가 우리 역할이죠."

한석규는 한국영화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젊었을 때 제가 '뉴 코리안 시네마'를



영화 '우상' 주연을 맡은 배우 한석규. (CGV아트하우스 제공)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한국영화를 꿈꾸고 맹렬하게 연기했죠. 자본, 투자, 제작자 모든 것이 급변하던 때가 1990년대였어요. 1998년에는 멀티플렉스도 생겼죠. 제가 꿈꿨던 새로운 한국영화를 하기 좋은 시기였고, 거기에 공감하는 이들

도 많았죠. 2000년대 들어서는 상장 열풍이 부는 등 또다시 환경이 바뀌었죠. 최근에 생각해보니 지금도 새로운 한국 영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은 그런 면에서 새로운 한국영화죠." /연합뉴스

'나 혼자 산다', 전현무-한혜진 휴식으로 전환점

독신·1인 가정 세대 반영 혼자 사는 스타들 일상 그려 시청률엔 큰 영향 없을 듯

MBC TV 간판 예능 '나 혼자 산다' 속 1호 커플 전현무-한혜진이 결별하면서 휴식기를 선언,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나 혼자 산다'와 같은 관찰 예능들은 출연진 간 관계성이 차지하는 지분이 상당하다. 같은 채널 또 다른 인기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이 스타와 매니저의 관계, JTBC '트래블러'가 류준열과 이제훈의 관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듯이 말이다.

물론 MBC TV 전(前) 간판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나 SBS TV '탄생1970' 류의 프로그램들도 멤버간 '케미' (케미스트리, 조화)가 영향을 주지만, 멤버별 톨(rol)이 부각되는 반면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여주는 관찰예능은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

2013년 3월 출발해 어느덧 장수 예능 반열에 오른 '나 혼자 산다' 역시 그렇다.

독신 남녀와 1인 가정이 늘어나는 세대를 반영해 혼자 사는 스타들의 일상을 그리는 게 기획 의도였지만, 연차가 쌓이면서부터는 무지개 회원 간 관계성 비중이 커졌다.

실제 커플로 이어졌던 전현무-한혜진은 물론 박나래와 기안84, 그리고 꼭 이성 조합이 아니더라도 '세 얼간이'로 불린 기안84, 이시진, 헨리 등 다양한 1인 가구 팀워크는 물론 외부 팬덤까지 공고화하는데 역할을 했다.

그중에서도 원년 멤버이자 '전 회장'으로 불리는 전현무와 '톱 모델'에서 '달신'으로 친근하게 변신한 한혜진의 교체는 프로그램이 전성기를 맞는 데 일조했다. 팬들도 외모부터 성격까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알콩달콩 융화되는 과정을 오랜 기간 지켜본 덕분이다.

그런 그들이 약 1년 만에 결별하고 출연도 잠시 쉬겠다고 밝히면서 '나 혼자 산다'도 전환점을 맞은 분위기다. 제작진이 두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전현무(왼쪽)·한혜진. (MBC 제공)

사람 자리를 공식으로 두기로 해 남은 무지개 회원들과 더불어 화사, 성훈, 김중재 등 게스트들이 빈자리를 더 많이 채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별과 휴식이 막상 프로그램 시청률이나 화제성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다른 관계자도 "두 사람 결별과 휴식으로 프로그램이 전환점을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다양한 1인 가구 라이프를 조명하는 초기 기획 의도로 회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것을 원하는 시청자도 꽤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측은 일단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혼자 산다'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무게중심을 잡은 두 사람의 휴식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방송을 지켜봐야 알 것 같다"며 "지금껏 그랬듯 멤버들뿐만 아니라 여러 게스트의 일상도 조명하며 묵묵하게 방송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이템(재)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40 살맛 나는 오늘
11	4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5.18 다큐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토크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역사저널 그날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20 현장중계 전두환 법정출두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와일드 코리아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뿌까 55 뽀뽀모 두야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웰다독이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15 문자방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원소집이 아내	10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차츰우물 만큼 유망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부산 일신여학교>			
10	00 가요무대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죄와 벌	00 아이템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	10 안녕하세요	10 UHD특집다큐멘터리 세계지질공원 지오투어리즘 스페셜	10 통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스포츠크션 (프로야구선수 골프 인 관)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봄나물 곱창만두>	17:15 마샤와 곰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자연의 색 뉴질랜드노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로보카 폴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형
07:00 레이디버그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30 고고다노노 공룡탐험대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배워서 남줄림(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띠띠뽀 띠띠뽀	14:30 꼬마히어로 슈퍼잭	<인생 찬가! 스리랑카 1부 모두를 환영합니다. 트링코말리>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5 탐원 구조대	<봄과 한 뼘 사이 1부 봄님은 어디까지 오셨나>
09:15 뽀뽀뽀 뽀로로	15:45 강철소년대 파이어로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원더볼즈	16:15 짝과 팡	22:45 글로벌 아빠 찾아삼선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3:55 배워서 남줄림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가히 납득이 갈 것이다. 48년생 가장 원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판국에 이르렀다고 본다. 60년생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72년생 안전에 관한 의식이 항상 우선 되어야 한다. 84년생 가급적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73, 59</p>	<p>42년생 어색하게 격식을 차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좋다. 54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목전의 상황에 충실하자. 66년생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78년생 무리하여서는 절대다 아니 되느니라. 90년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07, 32</p>
<p>37년생 규칙적이고 적당해야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49년생 한 톱포만 늦추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61년생 눈 먼 거북이가 우연히 물에 뜬 나무를 만나느 격이다. 73년생 머리로서 파악하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써 공감하자. 85년생 정신없었다. 행운의 숫자 : 04, 57</p>	<p>43년생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감정을 엄격히 구분하자. 55년생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67년생 미리 벌어진 틈을 잘 메워 놓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79년생 예견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91년생 대체적인 흐름이 매우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40, 83</p>
<p>38년생 방법까지 고려한다면 금상첨화이다. 50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이 요구 된다. 62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함이 유리하다. 74년생 검토한 결과가 확실하다면 변경해도 무난하다. 86년생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니 걱정 말라. 행운의 숫자 : 16, 46</p>	<p>44년생 계획했던 대로 진행 되리라. 56년생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68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신기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80년생 긍정적인 마인드와 결단성 있는 진행이 성사로 이끌 것이다. 92년생 암운이 떠도니 신중히 처신해야만 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1, 76</p>
<p>39년생 신중하지 않으면 손재수가 생길 것이다. 51년생 단차한 입장이다. 63년생 현재의 상태로 계속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75년생 느낌보다는 사실적 정황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87년생 구대의연한 인습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으니 풀이켜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54, 80</p>	<p>45년생 대상자와 우연히 마주칠 수다. 57년생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 69년생 과욕은 망신살을 부르는 법이니 심신을 안정시켜야 할 일이다. 81년생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듯하다. 93년생 큰일 나는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3, 73</p>
<p>40년생 마음만 앞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52년생 처한 입장 때문에 원칙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64년생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 하라. 76년생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88년생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길조를 띠게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3, 49</p>	<p>34년생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치가 급상승하게 된다. 46년생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58년생 원대한 계획으로 임해야 값진 수확을 할 것이다. 70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지 말라. 82년생 향후의 상황 전개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7, 96</p>
<p>41년생 집착함을 잃는다면 연쇄적인 흥사로 이어질 수 있다. 53년생 아무런 의미가 없다. 65년생 진중하게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법이다. 77년생 부드러운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89년생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니 마음을 비우자. 행운의 숫자 : 65, 41</p>	<p>35년생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날이다. 47년생 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격에 비유할 만하다. 59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이 겹치리라. 71년생 까다로운 문제들이 병렬하면서 머리가 아프겠다. 83년생 앞서서 격정해 봤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70, 34</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